



6 Focus

특별기획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싱가포르 국립대학 이태용 교수
SCI 논문이 아닌 논문은 논문이라 부르지 않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치열한 연구 풍토

동대신문

금주일언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는 행복을 기린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대등한 친구와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숙디나파타 사품 47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79호 2009년 (불기 2553년) 9월 7일 월요일

Cover Story 신종플루 우리대학은 얼마나 안전한가

“자발적 예방활동이 최선책이다”

감염 증상있으면 보건소 상담 통해 거점병원에서 검사받아야 비상대책위, 상황 주시, 감염자 대량 발생시 휴교조치도 검토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이하 신종플루)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대학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우리대학은 지난 31일 신종플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홍성조 학사지원본부장 이하 신비위)를 만들며 이어 지난 1일에는 신종플루 관련 학사행정 지침(指針)을 발표했다.

신비위는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고체계를 갖추고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학내구성원들에게 예방수칙을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책위 꾸려 대응책 마련 부심

신비위는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지와 e-mail 및 sms 발송을 통해 신종플루 관련 행동지침을 전달했다.

행동지침 전달을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간 후문과 혜화문에서 학내구성원들에게 12,000개의 항균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配付)하고 손세정제를 직접 뿌려 주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또 중앙도서관, 만해관 열람실, 학내 식당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 손세정제를 설치하고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손 세정제는 3개월간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학생서비스팀 임지현 계장은 “학생들이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배부하고 주요 건물에 손 세정제를 배치하고 있다. 또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포스터 부착(附着)과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예방법은 이것'

신비위는 해외에서 입국한지 7일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우리대학은 혜화문과 후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위생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배포했다.

이 지나지 않은 학생과 교수, 직원들의 등교를 일주일 동안 중지해줄 것을 권고(勸告)했다. 신종플루는 공기나 침을 통해 쉽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이다. 또 전세계 인구 대부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항체가 없는 바이러스라는 점이 확산속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신종플루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에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1~2미터 가량 날아가서 직접 다른 사람의 손에 묻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물체의 표면과의 접촉을 통해 옮겨간다. 옮겨간 바이러스는 호흡기나 눈으로 들어 전파된다.

알고 대처하면 두렵지 않다

하지만 신종플루도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피

한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소 점심 식사시간 전후 1시간에 식당을 찾는 시간분배가 필요하다. 둘째로 손을 자주, 그리고 꼼꼼히 씻어야 한다. 셋째, 강의실이나 도서관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안전거리(2미터)를 유지할 수 없는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개인의 면역기능(免疫機能)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숙면도 중요하다.

감염증상에는 무엇이 있나

신종플루는 발열과 기침이 가장 큰 증상이다. 발열증상이 나타날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신종플루일 가능성이 있고, 기침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10명중 7명 이상이 신종플루일 가능성이 있다. 신종플루는 보통 2~3일, 최장 7일의 잠복기(潛伏期)를 갖는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7일째까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구의 거점병원은 어디?

우리대학 인근의 신종플루 거점병원(據點病院)은 백병원(명동성당 입구)과 국립의료원(을지로 6가), 송도병원(신당 3동)이다.

검사는 크게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로 나뉘는데 선별검사는 30분~1시간 정도의 단시간에 검사 가능하며 보험이 적용되는 시간대(오후 6시 이전)의 검사비는 20,000원이다.

확진검사는 결과를 알기 위해 최대 3일 정도 소요되며 검사비는 보험 적용 시 67,200원이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학생들은 신속하게 교내 보건소(02-2260-3443)로 연락해 안내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보리수

‘다름’의 소중함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우리 주변에서 종종 ‘다름’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심지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직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때로는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나 믿음, 행동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는 늘 갈등과 분열상이 끊이지 않는 고해의 바다처럼 보이게 될 때가 많다.

불교에서는 이상적 세계의 모습을 ‘화엄(華嚴)의 세계’에 비유하곤 한다. 온갖 꽃들이 그야말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이 화엄세계 역시 서로 다른 모습과 향을 지닌 꽃들이 어우러져서 연출해낸 장관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듯하다. 화엄의 세계는 ‘다름’이 전제된 사회이다. 같음과 다름이 서로 무궁무진한 관계를 맺고, 이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와 원융을 추구하는 사회가 화엄의 세계인 것이다. 꽃이 만발한 꽃동산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정말 못난 꽃도 있다. 군데군데 잡초도 섞여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한데 어울려 한 모습의 꽃동산을 연출해낼 때 그것은 한없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화엄의 세계를 여섯 가지의 모습(六相)으로 표현한 바 있다. 역대 화엄사상가들은 이 육상의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해석을 덧붙여 나갔다. 그 가운데 중국의 고승 법장(法藏, 643-712)이 육상을 집에 비유하여 설명한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다. 법장은 화엄의 육상, 즉 총상(總相), 별상(別相), 동상(同相), 이상(異相), 성상(成相), 괴상(壞相)을 집의 지붕과 대들보, 서까래 등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집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매우 다양한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부재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 또한 서로 다르다. 대들보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대들보 하나만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회적 지위에는 높고 낮음이 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 역시 많고 적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이들이 원융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다.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못하다고 해서 그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한다면 사회 구성의 원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대들보 하나 만으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잘난 사람 하나만으로 우리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 곳 동악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조화롭고 원융한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식이 끊임없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발원해 본다.

본사사령

◇ 면기자
▲ 이영호(철학2) - 이상 9월 7일자

수습기자 추가모집 오는 10일 마감

거침없이 끊임없이 대한동국

103년을 이어온 동국대학교의 정신으로
세상이 기대하는 새로운 내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시대의 앞에 동국대학교가 먼저 가겠습니다.



- 대형국고지원사업 수주 최근 2개월 내 4개 과제, 300억여 원 규모
- 신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선정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선정
- 융합파이오니아 사업 선정 / 신기술창업집적사업 선정
- 장학금 증가폭 전국 5위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선정
- 교수전원(1,049명) 강의평가공개로 최상의 강의 제공
- 상시정원관리제로 학과 경쟁력 지속적 상승
-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건립 시작
- 경기도와 고양시, 동국대가 공동 추진 중인 고양 메디클러스터로 의생명과학캠퍼스와 일산병원 중심의 의료복합단지 조성
- 학문간 장벽 파괴 / 미래수요 대비 16개 전공 학문재편
- 세분화된 학과구조에서 학문간 융복합구조, 급변하는 수요자 위주 학문 구조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학제개편
- 교양과목 100% 영어강의 트랙제
- 현지 학기제
- 한 학과의 학생전원이 해외대학에 한 학기씩 수학하는 현지학기제도

동국대학교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수시1차 2009. 9. 9(수) ~ 9. 14(월)	수시1, 2차 2009. 9. 9(수) ~ 9. 16(수)
수시2차 2009. 11. 16(월) ~ 11. 19(목)	홈페이지/입시상담 web.dongguk.ac.kr
홈페이지/입시상담 www.dongguk.edu	http://psi.dongguk.ac.kr
http://psi.dongguk.edu	

* 수시1, 2차 특수지원 가능(서울, 경주캠퍼스 모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dongguk UNIVERSITY

2009학년도 2학기 퇴임교수 인터뷰

“동국대 교수여서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임동희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받는 사학과 임동희 교수는 순식간에 다가온 자신의 정년퇴임에 대해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동국대 교수로 있었던 것은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란 말로 자신의 첫발을 시작한 임교수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설레임에 가득 차있다”

라며 정년퇴임을 새출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게 되는 섭섭함을 감추지는 않았다. 임 교수는 “30여년 간 정들었던 동료교수들, 낯선 타국에서도 만나면 ‘임동희 교수님이 시죠? 강의 듣던 학생입니다’라고 반갑게 인사하던 학생들은 자신에게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것에 큰 자부심과 행복을 주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그녀는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민속학회의 회장을 역임(歷任)하며 학회활동에 많은 참여를 했다. 또한 유네스코 국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종묘제례(宗廟祭禮), 판소리, 강릉 단오제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과정에 참가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찼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전적으로 동국대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며 “자신을 후원해주던 동료교수들과 도와주던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세〉 viva@dongguk.edu

2009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명단

<p>영어영문학과</p>  <p>Maya Weimer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외 국인 조교수 △뉴욕시립대 English Literature △UC Irvine Studio Art 석사 △ UC Irvine 대학원장의 조교</p>	<p>중어중문학과</p>  <p>양문준 문과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서화사범대 중문학 △북경사범대 현대한어 석사 △사천대 한어언문자학 박사 △사천대학 교수</p>	<p>중어중문학과</p>  <p>허지강 문과대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항주대 중문학 학·석사 △상해사범대 비교문화학과 세계문학 박사 △절강대 부교수</p>	<p>화학과</p>  <p>공명대 이과대 화학과 부교수 △동국대 화학 학·석사 △도교대 화학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p>
<p>게임멀티미디어학과</p>  <p>이창한 영상미디어대 게임멀티미디어 공학과 조교수 △동국대 컴퓨터 공학 학·석·박사 △링크젠 책임 연구원</p>	<p>교육대학원</p>  <p>윤초희 교육대학원 조교수(3년차) △연세대 교육학 △일리노이대 Education 석사 △위싱턴대 Education 박사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p>	<p>밀리미터파 신기술연구센터</p>  <p>Vasudevan Kannan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 조교수 △Univ of Madras Physics △Bharathidasan Univ Physics 석사 △Anna Univ Crystal Growth 박사</p>	<p>밀리미터파 신기술연구센터</p>  <p>Kallarakkal Rajesh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 조교수 △Mahatma Gandhi Univ Physics 박사 △Thomas College Research Adviser</p>

<p>생명과학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p>  <p>조용길 생명과학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 부교수 △연변의과대 Pharmacology 석사 △전북대 의학 박사 △중국목단강의과대 부교수</p>	<p>생명과학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p>  <p>조정림 생명과학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 조교수 △연변의과대 Anatomy 석사 △전북대 의학 박사 △중국목단강의과대학 부교수</p>	<p>생명과학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p>  <p>Santosh Rani Agrawal 생명과학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 조교수 △Guru Ghasidas Univ Botany 박사</p>	<p>생명과학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p>  <p>Shambhunath Bose 생명과학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 부교수 △Visva Bharati Univ Life Science 박사 △Jubilant Biosys Associate Director</p>
--	--	---	--

알림

2009학년도 2학기 퇴임교수 조 용 길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약력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 졸업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 문학석사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저서
《불교와 자연과학》 《원시본불교철학의 현대적 이해》 (역자), 논문으로 《압과 삶에 대한 불교의 실천윤리》 《근본경전으로서의 아함경의 분석적 고찰》 등이 있다.

주요경력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단장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조용길 교수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인터뷰가 불가능하여 간단한 약력으로 대신합니다.

안병진
생명과학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 조교수 △전남대 의학 △포천중문대 대체의학 석사 △가톨릭대 임상연구센터 연구교수

탈수습기

‘진실’이라는 태양을 향해 비상하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약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친 나에게 아직 ‘기자’라는 직함은 그저 무겁기만 하다. 사실, 진실을 쫓는 ‘기자’라는 일에 예전부터 매력을 느껴왔기에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동대신문사에 입사지원서를 냈고, 곧 동대신문사의 제 5기 수습기자가 되었다. 하지만 ‘기자’라는 직함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물론 기자일이 그리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잊지 못할 수습기자 신고식과 여러 교육들을 거친 후에 시작된 나의 수습기자 생활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 중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취재원들에게 좀 더 낯살 좋게 취재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실망감, 마음만큼 기사를 잘 쓰지 못하는 나에 대한 실망감에 ‘기자’라는 직함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하지만 힘들었던 6개월 동안 마냥 잃기만 하지는 않았다. 혼날 땐 한없이 무서웠지만 친절하신 형들을 얻었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다독여주던 동기들을 얻었다. 또 단순히 기자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책임감도 배울 수 있었다.

만약 내가 기자가 아니었거나 도중에 포기했다면 나는 이 많은 인연과 배움들, 그리고 수많은 기회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수습기자가 된지 6개월이 지난 나에게 탈수습,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난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밀거름 삼아 다시 한 번 날아오르려 한다. ‘기자’라는 직함이 그리 무겁지만은 않은,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진짜 기자’가 될 그 날을 그리며.

내 이름 걸고, 동대신문 기자로 걷기



이지연 기자 jly88918@dongguk.edu

동대신문사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다. 수습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럼 진짜 기자는 언제 되는 거야?”고 물어왔다. 그 질문에 “난 뭐 진짜 기자란 소리가”며 웃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수습기간은 진짜 기자로 가기위한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내 꿈에 대해서 얼마나 추상적으로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취재부터 시작해서 기사 작성, 편집까지, 신문사 일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 출입처를 맡고 취재회의를 할 때 제대로 취재해 온 것이 없어 선배들에게 “보충취재 해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다반사였다. 한 번 가서 제대로 물어 오지 못하는 내 자신도 짜증났고, 한 번 만나는 것도 떨리고 부끄러웠는데 또 다시 만나 똑같은 얘기를 물어봐야한다는 사실에 정말이지 어딘가로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나는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권력 없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는 기자라는 직업을 동경했다. 하지만 실제로 나만의 관점을 갖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러고도 기자라 할 수 있나?”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라기보다는 이야기 잘 들어주는 청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 속도 상했

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책 속에서의 간접경험과 앞으로 신문사 활동을 통해 나만의 관점 갖기에 매진해야 한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역동적이며 혼도 많이 낫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수습기간을 떠올리며 그 시간도 언젠가 추억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꼭 권력자가 권력과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감사하는, 동시에 힘없는 사람들의 애환과 설움을 해소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자 이지연이 되고 싶다.

기사를 예술로! 동대신문사 예술에 빠지다.



백신아 기자 amy@dongguk.edu

“내가 사라지면 세상이 흔들릴 만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모두 가슴속에 저마다의 원대한 꿈을 품고 살아간다. 나에게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꿈이 있다. 그것은 미국 스미소니언의 아시아 박물관에서 불교미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기자가 꿈도 아니고, 과도 불교미술과. 이때문인지 취재를 하다보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 “불교미술과요? 의외네요?” 미술학도가 신문에 들어와 취재를 하려고 눈을 반짝이는게 신기한 모양이다. 사실 나는 합격통보를 받은 후 마치 통과의례처럼 당연히 신문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했다. 왜였을까? 고등학교 때 한국경제신문 청소년 기자 활동을 하면서 나는 불교미술의 세계화라는 큰 꿈을 키웠다. 그리고 불교미술을 알리기 위해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쓰기와, 그에 걸맞는 지식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렇다. 나는 동대신문을 통해 성장하고 싶었고 동시에 불교미술을 알리고 싶었다.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은 성장통을 앓고 있다. 우리의 미가 도외시된 것은 문화적 열등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정체성의 위기라는 심각함을 낳았다. 나는 실력을 키워서 이런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소리없이 사라지는 한국이 싫기에,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한국이 아닌 세계속의 주체가 된 문화강국 한국을 보고싶기 때문이다. 이런 뜻을 품고 들어온 동대신문은 내게 돈 주고는 살수 없는 값진 경험을 가져다 줬다. 많은 출입처를 돌며 부지런히 취재원들과 교감하려 노력했다. 또한 눈

빛만 봐도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동기를 만났다. 이 모든 것은 그림을 그리는 나였기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지난 1학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어느덧 추수의 계절인 가을과 함께 나는 수습기자에서 무르익어 어느덧 정기자라는 열매를 맺게됐다. 아직은 재질대는 스토리텔러에 불과하지만 정기자 되며 동시에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내면화된 글을 지면에 담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스미소니언에서 불교미술을 알리는 큐레이터. 불가능해 보이지만 했던 나의 꿈은 동대신문사 안에서 조금씩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어느덧 구두 뒷 굽은 닳아 아스팔트와 경쾌한 마찰소리를 낸다. 조금은 닳은 뒷 굽이지만 펜 끝은 날카로운 준비가 돼 있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나는 불교미술학과 기자 백신이다.

동국미디어센터 특별기획 -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 싱가포르 - 싱가포르 국립대학(NUS)

피말리는 연구, 또 연구... NUS의 경쟁력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스물논논이 아닌 것은 논논이라 부르지 않는다”

싱가포르 국립대 생명공학과 이태용 교수 인터뷰



올해로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 온 지 사흘째 접어들었다. 이태용 교수는 이 교수의 현재 생명공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멀다공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태용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졸업한 뒤, 위스콘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선택받은 소수의 공부 잘하는 소수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천자가 항상 우월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는 언제든 다수의 사람들도 노력 하에 따라 선택받은 소수를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의 힘을 믿는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태용 교수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연보’를 받았다. 이 교수가 위스콘신대학에서 지도교수와 함께 학제 논논이 ‘Nature’에 실리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됐던 것. 리브풀을 방문 당시 논논이 ‘위스콘신’에서의 연구 경험을 되살려 싱가포르에서 좋은 연구를 해 달라는 총장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 교수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초빙돼 온 지 4년,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느냐.

“싱가포르국립대에서 말하는 논논은 모두 SCI 논문이다. SCI 논문이 아닌 것은 논논이라 부르지 않죠”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논논이라 부를 수 있는 논논의 수준은 꼭 SCI가 아니다. 이태용 교수는 “한국에서도 학회지에 논문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런 경우는 논논은 아니어서는 쓰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 이태용 교수가 속해 있는 공학의 경우, 3년 동안 지원되는 최소한의 연구비가 거의 전액 인건비이다. 연구성능을 보이는 교수들의 경우, 대학은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 교수는 “연구 성과가 좋은 교수의 경우, 학교의 연구비 지원이 너무 많아 주제를 몇몇 주제로만 ‘허지’만 반대해 성과가 없는 연구비는 지원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연구비 심사 경쟁률만 3대1, 치열한 경쟁속에서 능력대로 평가받는 교수 사회 연구 분위기 후끈”

“연구비 심사 경쟁률만 3대1, 치열한 경쟁속에서 능력대로 평가받는 교수 사회 연구 분위기 후끈”

자원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스쿨버스(School Bus)가 캠퍼스 내를 돌아다닐 정도로 넓은 캠퍼스에서, 교수들은 연구공간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연구성과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연구 공간이 끊임없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태용 교수는 “연구를 잘 하는 교수는 계속 계속 줄어든다. 못 하는 교수는 계속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첫 단추를 잘 꿰어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교수들의 연구비 지원기준을 만들기 위해 교수들의 연구에 대해 내부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공대 내에서는 3:1의 경쟁률이다. 이 교수는 “제출되는 1500여개의 과제 중 50여개 정도만이 선정된다”며 “내년에 한 번 있는 심사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구입할 수도 없고, 해외에 나가 논문을 발표 할 수도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교수가 ‘악순환’이라고 꺼지 설명하는 데에는 공대 내부에서 통용되는 교수의 연구비 계산 공식 때문이다. 즉 1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는데, 5천만원 정도의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교수의 앞으로 연구비 지원은 5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교수 연구에 대한 내부심사 결과 ‘연구비 지원 A’에 따른 교수의 성과는 ‘B’라는 공식이 성립되면 이에 따라 앞으로 그 교수의 논문 한 편만 연구비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다. 이태용 교수는 “어떤 교수는 논문 한 편에 지원 받기는 하지만, 어떤 교수는 2천만원이 채 안 되는 교수들도 있다”고 말한다. 연구하는 교수들 사이에서 말 못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족할 정도로 성과를 요구받는 싱가포르 국립대의 ‘요즘 분위기는’가이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한다. 성과면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Impact’이 없는 논문이 대세라는 것이다.

피해는 논문 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논문이 타인에게 얼마나 인용되는지가 보다 중요한 문제라 한다. 이태용 교수는 “예를 들어, 아무것도 성과를 연상했을 때, 그의 연구성과가 자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논문을 쓰자는 ‘요구’라고 말한다. 이태용 교수는 싱가포르 국립대에 온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연구 성과도 우수할 뿐이다. 연구비 지원 실적으로만 보아도 상위권이라는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한국인 교수의 입장에서 국내 연구 환경에 대한 조건을 부각했다. 그는 영어 능숙주의자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전제한 뒤 영어는 문화와 학회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나오는 논문도 전부 영어로 쓰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논문도 영어로 쓰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니까”라고 말했다. 교수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은 풍부한 재정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고 해서 연구성과가 반드시 나오지는 않는다. 좋은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 연구환경에 대한 뒷받침과 함께 연구성과를 검증하는 철저한 시스템이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 대학에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다.

INTERVIEW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최고의 연구능력을 지닌 교수진과 최고의 학생들로 리틀아미비그로 불릴 만할 새로운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의 대표대학이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하게 하고, 또 무엇이 그들을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하는지 그들의 핵심 경쟁력을 들여다 보면 큰 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다시 보게 된다. 이 교수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다시 보게 된다. 이 교수는 “연구 성과가 좋은 교수의 경우, 학교의 연구비 지원이 너무 많아 주제를 몇몇 주제로만 ‘허지’만 반대해 성과가 없는 연구비는 지원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 글로벌 순위**
1. 일본 리츠메이칸 APU
 2. 싱가포르 국립대학
 3. 미국 컬럼비아 대학
 4. 홍콩대학
 5. 미국 뉴욕대학
 6. 일본 고토대학
 7. 중국 베이징대학
 8. 영국 유버시티 칼리지
 9. 중국 칭화대학
 10. 프랑스 파리 4대학
 11. 일본 교토 불교대학

김광현 기자 ken@dongguk.ac.kr



△ 싱가포르 국립대학에는 모두 10개의 기숙사 있다. 외국인 교수를 위한 교직원 아파트도 있고, 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도 있다. 사진은 12개의 건물로 이뤄진 Prince George's Park Residences 기숙사의 모습

있던 분야는 연구 능력이 뛰어난 교수진의 확보였다. 대학이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노선을 변경한 뒤 가을인 노력 때문일까,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 초빙돼 있는 외국인 교수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치열한 성과 평가, 이면에는 풍부한 지원

싱가포르 국립대 기 교수 1인당 평균적으로 연구비 지원에 예산으로만 지출하는 최소한의 인건비에 이를 뿐 자국의 발전으로까지 지원받지 못했다. 이는 대학의 발전으로까지 지원받지 못했다. 이는 대학의 발전으로까지 지원받지 못했다. 이는 대학의 발전으로까지 지원받지 못했다.

교육중심에서 연구중심 대학으로 변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2000년대 이후, 교육 중심의 대학에서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변화를 꾀했다.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변화하면서 교수들의 연봉과 승진 제도를 과감히 개혁했다. 연봉제에 따라 결정되던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누고, 성과급은 최대 3개월치의 월급으로 정했다. 또한 승진에서 연봉자를 배려하던 관행을 버리고 연구 성과 위주로만 평가해 교수들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했다.

그 결과 2008년 영국 더 타임스-QS 세계대학평가에서 30위, 2008년 조인셜보-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는 10위를 차지했다. 대학평가의 평가항목 중 ‘연구 및 논문’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연구 부문에서 단연 강세다.

‘교수의 우수한 연구 능력, 이에 따른 연구 성과’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자랑하는 또 다른 강점이자 생각하는 논문의 퀄리티와는 다르다. “논문의 퀄리티가 높을 뿐 아니라, 논문에 대해 필터링 제도를 뒤 집할 때까 어려울 정도로 교수들 우대한다”고 말한다. 사실 싱가포르 교수들은 학회 당국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 실을 정도로 많다고 호소할 정도다. 하지만 그러한 ‘과도함’은 곧 ‘최선을 기울이는데

는 발판’이기에 교수들은 심 연구 연구를 진행 한다. 이태용 교수의 경우에도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루 12시간 근무, 휴가는 일주일 에 꼭 하루의 시간만 허용할 정도다.

테뉴어 심사 통과하는 하늘에 별따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연봉 및 승진제에

의 개혁과 함께 테뉴어 시스템의 변화도 단행 했다. 과거 교수 재직 기간에 따라 테뉴어 심사를 하던 시스템을 버리고, 성과에 따른 단행 테뉴어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다단계 테뉴어 심사제도에 따라 교수는 우선적으로 학과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후에는 단행 대학의 추천을, 단행 대학 이후에는 12명의 International reviewer들에게 자료를 보내 테뉴어 신청이 적합한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

International reviewer를 이루어는 다단계 테뉴어 심사제도에 따라 테뉴어 심사단의 통과를 받아야 한다. 테뉴어 심사단까지 통과한 교수에 한해 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듯 까다로운 테뉴어 심사를 하다보니 테뉴어 심사 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것은 일반적이다.

총 12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된 교수만이 테뉴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싱가포르국립대 내에 단행 테뉴어 심사 제도를 통과한 교수는 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2명의 교수 중 한 명은 뉴욕에서 테뉴어를 받은 경우가 때문에, 사실상 싱가포르의 테뉴어 제도를 통과한 교수는 한 명인 셈이다. 총 2천명이 넘는 테뉴어 교수 중 아직까지 테뉴어 심사 제도를 넘은 교수는 극소수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극소수조차도 ‘달아났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테뉴어를 받은 교수들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이 현 싱가포르대

의 교수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태용 교수는 “최근 들어, 총장님께서는 5년 후에 거의 대부분의 테뉴어 심사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며 “5년 동안 대강 예측 되는 논문은 보통 20편에서 25편”이라고 말한다.

또한 ‘테뉴어 심사’의 가장 큰 관건은 교수가 독립적으로 연구실을 꾸릴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NUS에 없는 것, 술·담배 그리고 시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가진 교수들의 연구성과 뿐만 아니라, 엄격한 학사관리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도 그들의 핵심 경쟁력이다. 싱가포르 대학 학생사회에는 세가지가 없다. 술, 담배, 그리고 시위운동이다.

MBA 과정에 재학중인 박종석 씨는 싱가포르

의 교수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태용 교수는 “최근 들어, 총장님께서는 5년 후에 거의 대부분의 테뉴어 심사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며 “5년 동안 대강 예측 되는 논문은 보통 20편에서 25편”이라고 말한다.

파격적인 연구비 지원, 엄격한 연구성과 평가 따라 차등 보상

술·담배·시위 없는 3無 캠퍼스 너른 잔디밭에서 스포츠 즐겨 이중,삼중의 테뉴어 심사는 하늘의 별따기-심사끝나도 안심못해

의 개혁과 함께 테뉴어 시스템의 변화도 단행 했다. 과거 교수 재직 기간에 따라 테뉴어 심사를 하던 시스템을 버리고, 성과에 따른 단행 테뉴어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다단계 테뉴어 심사제도에 따라 교수는 우선적으로 학과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후에는 단행 대학의 추천을, 단행 대학 이후에는 12명의 International reviewer들에게 자료를 보내 테뉴어 신청이 적합한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

International reviewer를 이루어는 다단계 테뉴어 심사제도에 따라 테뉴어 심사단의 통과를 받아야 한다. 테뉴어 심사단까지 통과한 교수에 한해 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듯 까다로운 테뉴어 심사를 하다보니 테뉴어 심사 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것은 일반적이다.

총 12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된 교수만이 테뉴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싱가포르국립대 내에 단행 테뉴어 심사 제도를 통과한 교수는 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2명의 교수 중 한 명은 뉴욕에서 테뉴어를 받은 경우가 때문에, 사실상 싱가포르의 테뉴어 제도를 통과한 교수는 한 명인 셈이다. 총 2천명이 넘는 테뉴어 교수 중 아직까지 테뉴어 심사 제도를 넘은 교수는 극소수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극소수조차도 ‘달아났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테뉴어를 받은 교수들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이 현 싱가포르대

“수준 높은 영어강의, 싱가포르 대학의 강점”

이하연 (싱가포르 국립대 MBA 과정) 씨 인터뷰

이하연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위해 싱가포르로 유학을 오게 됐다. 그는 한국의 교육 과정과 싱가포르의 교육 과정을 모두 경험해 본 셈이다. 한국 출신의 이하연 씨는 “수준 높은 영어강의, 싱가포르 대학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어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미친 일이다”라고 지적한다. 학교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레포트, 시험, 발표 등 강의의 환경과 제도를 모두 배우어야 하는데 필요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등의 직접생산보다는 우수한 인력 자원을 배정함으로써 무역과 금융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 교육도 이러한 국가적 정책에 맞춰져 있다. 돌아온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하연 씨는 한국의 대학도 자신들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제화도 영어강의도, 우수연구인력 유치도 거기서 비롯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라스크와 고깔에 색을 칠하며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정형화하고 있는 작업 내용에 대해 묻자, 학생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저희들은 아예 정형을 앞두고 있는 산업생태학으로, 앞으로 있을 산업생태학의 환경변화를 위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는 단과대학 산업생태학이 직접 중앙도서관 컴퓨터 재충분용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일종의 산업생태학의 문화라고 한다. 술판으로 일컫는 환경행사가 아니라, 산업생태학과 재학생이 함께 자신들의 학과와 특성에 맞는 모양을 제작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유홍준 화가 없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는 산업생태학 작품 전시회가 선행해 후배를 환영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전자공학에 재학중인 신영준 씨는 “지도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고 있다. 이 교수의 학생들은 술을 좋아하게 놓 줄 아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며 “간접한 대학생활의 문화가 독립적으로 연구실을 꾸릴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수준 높은 영어강의, 싱가포르 대학의 강점”

이하연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위해 싱가포르로 유학을 오게 됐다. 그는 한국의 교육 과정과 싱가포르의 교육 과정을 모두 경험해 본 셈이다. 한국 출신의 이하연 씨는 “수준 높은 영어강의, 싱가포르 대학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어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미친 일이다”라고 지적한다. 학교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레포트, 시험, 발표 등 강의의 환경과 제도를 모두 배우어야 하는데 필요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등의 직접생산보다는 우수한 인력 자원을 배정함으로써 무역과 금융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 교육도 이러한 국가적 정책에 맞춰져 있다. 돌아온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하연 씨는 한국의 대학도 자신들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제화도 영어강의도, 우수연구인력 유치도 거기서 비롯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준 높은 영어강의, 싱가포르 대학의 강점”

이하연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위해 싱가포르로 유학을 오게 됐다. 그는 한국의 교육 과정과 싱가포르의 교육 과정을 모두 경험해 본 셈이다. 한국 출신의 이하연 씨는 “수준 높은 영어강의, 싱가포르 대학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어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미친 일이다”라고 지적한다. 학교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레포트, 시험, 발표 등 강의의 환경과 제도를 모두 배우어야 하는데 필요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등의 직접생산보다는 우수한 인력 자원을 배정함으로써 무역과 금융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 교육도 이러한 국가적 정책에 맞춰져 있다. 돌아온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하연 씨는 한국의 대학도 자신들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제화도 영어강의도, 우수연구인력 유치도 거기서 비롯돼야 한다는 것이다.

“간간한 튜토리얼이 학생을 변화시킨다”

신영준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씨 인터뷰

“간간한 튜토리얼이 학생을 변화시킨다”

신영준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씨 인터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한 번에 정상까지 오르진 못할 겁니다. 산을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신영준 씨, 그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받은 느낌은 든든한 ‘베이스 캠프’다.

그는 미국 유수의 명문대학의 입학 허가료, 장학금을 모두 뿌리고도 싱가포르의 유학을 결정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진학을 위해 한국에서 만 점의 교수들과 상담할 정도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신영준 씨가 보다 좋은 여건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갔다고 했을 때, 지원했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곳에 와서 일년의 튜토리얼을 하지 않나”라고 말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가진 경쟁에 대한 신영준 씨는 튜토리얼을 든다. “싱가포르 국립대는 ‘튜토리얼 시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고, 수업 외적인 시간도 교수들 수반하에 연구실 문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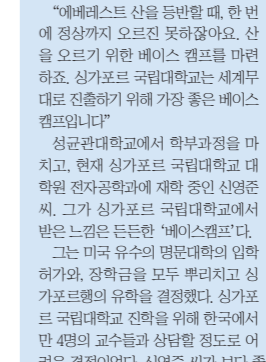
신영준 씨는 싱가포르국립대학을 다니며 국립대학들과 가장 많은 차이를 느꼈던 부분은 수업의 질이었다. 수업의 질적 문제에서 발생한 차이였다.

그는 이 곳에서 학부 학생들의 졸업 논문을 받아본 후 경악했었다고 한다. 그는 “학부생들의 70-80%가 되는 분량의 논문을 어느 미국 대학 부원장에게 작성해서 제출한다. 대학원생이 함께 도와주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퀄리티의 논문”이라고 말한다.

“조교가 단순한 교수님을 돕는 학생이 아닌 마땅한 임금을 받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싱가포르 국립대로부터 대학 2년 달리기 지원금도,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취득 후에는 5백 달러가 상한선 2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는 “대학원이라는 곳이 적당히 어려워지는 게 통보되어 어떤 장단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조교가 단순한 교수님을 돕는 학생이 아닌 마땅한 임금을 받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싱가포르 국립대로부터 대학 2년 달리기 지원금도,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취득 후에는 5백 달러가 상한선 2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는 “대학원이라는 곳이 적당히 어려워지는 게 통보되어 어떤 장단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조교가 단순한 교수님을 돕는 학생이 아닌 마땅한 임금을 받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싱가포르 국립대로부터 대학 2년 달리기 지원금도,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취득 후에는 5백 달러가 상한선 2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는 “대학원이라는 곳이 적당히 어려워지는 게 통보되어 어떤 장단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신영준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씨 인터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한 번에 정상까지 오르진 못할 겁니다. 산을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신영준 씨, 그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받은 느낌은 든든한 ‘베이스 캠프’다.

그는 미국 유수의 명문대학의 입학 허가료, 장학금을 모두 뿌리고도 싱가포르의 유학을 결정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진학을 위해 한국에서 만 점의 교수들과 상담할 정도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신영준 씨가 보다 좋은 여건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갔다고 했을 때, 지원했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곳에 와서 일년의 튜토리얼을 하지 않나”라고 말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가진 경쟁에 대한 신영준 씨는 튜토리얼을 든다. “싱가포르 국립대는 ‘튜토리얼 시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고, 수업 외적인 시간도 교수들 수반하에 연구실 문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이다”

신영준 씨는 싱가포르국립대학을 다니며 국립대학들과 가장 많은 차이를 느꼈던 부분은 수업의 질이었다. 수업의 질적 문제에서 발생한 차이였다.

그는 이 곳에서 학부 학생들의 졸업 논문을 받아본 후 경악했었다고 한다. 그는 “학부생들의 70-80%가 되는 분량의 논문을 어느 미국 대학 부원장에게 작성해서 제출한다. 대학원생이 함께 도와주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퀄리티의 논문”이라고 말한다.

“조교가 단순한 교수님을 돕는 학생이 아닌 마땅한 임금을 받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싱가포르 국립대로부터 대학 2년 달리기 지원금도,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취득 후에는 5백 달러가 상한선 2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는 “대학원이라는 곳이 적당히 어려워지는 게 통보되어 어떤 장단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조교가 단순한 교수님을 돕는 학생이 아닌 마땅한 임금을 받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싱가포르 국립대로부터 대학 2년 달리기 지원금도,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취득 후에는 5백 달러가 상한선 2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는 “대학원이라는 곳이 적당히 어려워지는 게 통보되어 어떤 장단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수준 높은 영어강의, 싱가포르 대학의 강점”

이하연 (싱가포르 국립대 MBA 과정) 씨 인터뷰

이하연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위해 싱가포르로 유학을 오게 됐다. 그는 한국의 교육 과정과 싱가포르의 교육 과정을 모두 경험해 본 셈이다. 한국 출신의 이하연 씨는 “수준 높은 영어강의, 싱가포르 대학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어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미친 일이다”라고 지적한다. 학교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레포트, 시험, 발표 등 강의의 환경과 제도를 모두 배우어야 하는데 필요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등의 직접생산보다는 우수한 인력 자원을 배정함으로써 무역과 금융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 교육도 이러한 국가적 정책에 맞춰져 있다. 돌아온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하연 씨는 한국의 대학도 자신들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제화도 영어강의도, 우수연구인력 유치도 거기서 비롯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준 높은 영어강의, 싱가포르 대학의 강점”

이하연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위해 싱가포르로 유학을 오게 됐다. 그는 한국의 교육 과정과 싱가포르의 교육 과정을 모두 경험해 본 셈이다. 한국 출신의 이하연 씨는 “수준 높은 영어강의, 싱가포르 대학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영어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미친 일이다”라고 지적한다. 학교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레포트, 시험, 발표 등 강의의 환경과 제도를 모두 배우어야 하는데 필요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등의 직접생산보다는 우수한 인력 자원을 배정함으로써 무역과 금융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 교육도 이러한 국가적 정책에 맞춰져 있다. 돌아온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하연 씨는 한국의 대학도 자신들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제화도 영어강의도, 우수연구인력 유치도 거기서 비롯돼야 한다는 것이다.

INTERVIEW

△ 신영준 학생은 테너를 준비하는 모습. △ 넓게 펼쳐진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운동장.

인도네시아 부족의 한글 공식문자 사용계기로 본 한글의 창제원리

모든 소리 표현, 한글 과학성에 세계가 감탄

영국 옥스포드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기도



김승웅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훈민정음학회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짜야족이 한글 문자를 쓰기로 했다고 해서 화제다. 이런 맥락에서는 한글을 한국의 문자로 규정하기보다는 인간의 말소리를 가장 잘 적을 수 있는 인류의 보편 문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한글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뽑은 것이나 역사학자 존맨이 “모든 문자의 꿈”이라고 한 것은 한글의 보편적 과학성과 우수성의 실체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자는 통섭 학문의 천재였던 세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종의 사유는 근대 학문과 탈근대 학문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는 소쉬르의 사유를 훨씬 뛰어 넘은 것임을 필자는 “세종과 소쉬르의 통합언어학적 비교 연구(사회언어학 16권 1호)”라는 논문에서 입증한 바 있다.

한글은 그 자체가 문자과학이며 이러

한 문자과학은 언어학, 천문과학, 음악, 수학, 역학의 통섭과 융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김승웅, 28자로 이룬 문자혁명 훈민정음)

한글창제의 핵심은 최소원리

그렇다면 과학성과 우수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한글 창제 원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글 창제 원리는 최소 원리, 생성 원리, 천문 원리, 음악 원리, 수학 원리 등으로 풀어낼 수 있다. 최소 원리는 최소 문자소(자소, 자음자, 모음자)를 설정하여 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원리다.

곧 자음의 문자소는 ‘ㄱ ㄴ ㄷ ㄹ ㅁ ㅇ’이고 모음의 문자소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이다. 미국 앨라배마대 김기향 교수는 이런 여덟 자의 문자소조차 점(·)의 집합으로 본다. 한국말에서 발달되어 있는 받침 종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와 같은 도형 원리를 적용한 것도 최소 원리다. 이러한 최소 원리는 마치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 다양한 물질 현상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이치를 닮았으며 이를 발견해 낸 근대 원자 과학 이치와 같다.

이런 최소 원리는 생성 원리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생성 원리는 문자 확장장과 음절자 생성에 적용되었다. 문자 확장에서는 기본 문자소에 가획(ㄹ→ㄹ→ㄹ) 원리와 배합(ㅏ) 원리, 합용 원리(ㅏ+ㅓ=ㅕ)를 적용하여 기본 문자 28자와 그밖에 다양한 문자(기분자 포함 모두, 모음자 29, 자음자

40)를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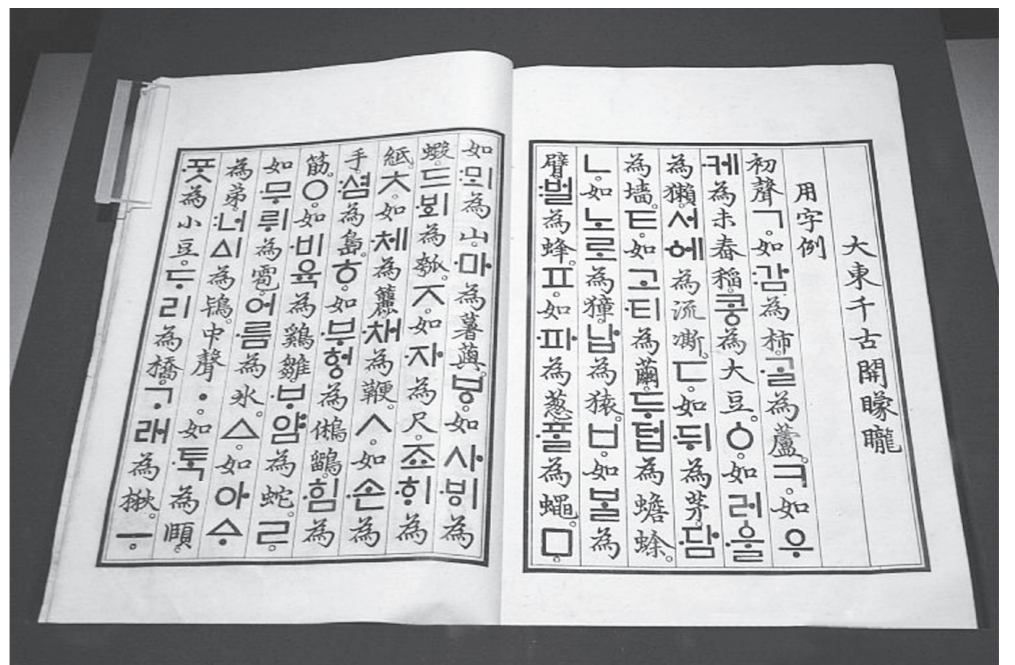
또한 초성자와 종성자, 종성자의 조합 원리를 통해 실제 다양한 소리를 적어낼 수 있는 놀라운 수의 음절자를 생성하게 했다. 현대 한글의 경우 초성자 19, 종성자 21, 종성자 27개를 ‘가가거겨’식으로 조합하면 무려 11,172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5세기에 사용된 문자를 현대식으로 조합하면 3만자가 넘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합 원리인 병서법, 연서법, 부서법, 합용법을 모든 문자소에 적용하면 무려 399억여 자(39,856,772,340)가 생성됨을 전산학자인 변정용 교수가 컴퓨터로 계산해 낸 바 있다.(변정용, 한글의 과학성, 함께여는 국어교육 26호).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화

이런 생성 원리 때문에 세종은 닭 울음소리,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그 어떤 소리도 다 적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 천문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는 선언에서 드러난다. 이는 조잘대는 아이들의 말소리부터 스쳐가는 바람 소리까지 다 적기 위해 우주 천문의 이치를 관찰하여 말소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해 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세종은 미시 전략을 자음자에 적용하여 자음의 원형 문자를 말소리가 일어나는 발음 기관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상형해 냈고, 거시 전략을 모음자에 적용하여 천지



인의 틀 속에서 원형 문자를 상형해 냈다. 이렇게 바른 소리를 제대로 적을 수 있는 정음(바른 소리) 문자를 만들다 보니 과학적인 문자가 되었다. 이러한 천문 원리는 자연스럽게 음악 원리를 아우르게 되었다. 조선 특유의 음악을 정리하게 하고, 그 또한 작곡가이며 절대 음감의 소유자이기도 했던 세종은 ‘궁상각치우’와 같은 자연스런 음악 이치를 문자 창제에 반영하여 음률문자를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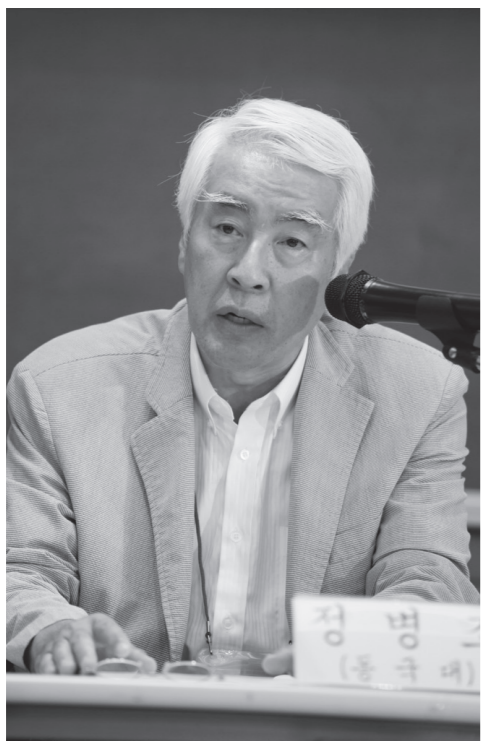
한태동 연세대학 명예교수는 피리와 같은 전통 악기와 첨단 기계를 동원하여 한글에 담긴 공상각치우 원리를 밝혀낸 바 있다.(세종대의 음성학, 연세대출판부, 2003) 음양오행의 역학을 적용한 것도 바로 천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도형원리등 수학원리도 사용돼

한글 창제에 적용된 수학 원리의 핵심은 유클리드 기하학인 도형 원리와 비유클리드 기하학인 위상수학이 적용되었다. (정희성,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위한 과학 이

론의 성립) 이를테면 한글은 점과 선과 원만으로 완벽한 대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음자와 모음자의 조합에서 ‘가’의 경우 자음자를 고정시키고 모음자만을 90도씩 틀면 각각 ‘가, 구, 고, 거’ 네 글자가 생성이 되는데 이는 최소의 문자소로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한의 글자를 생성해 내는 위상수학의 원리다. 자음자와 모음자의 도형 원리를 달리하여 위아래 결합 도형을 통하여 가로 적기와 세로적기를 모두 가능하게 한 것은 도형 생성원리의 극치다. 이때의 도형 원리는 곧 예술 원리이기도 하다.

이제 소통 원리로서 창제 원리는 대단원을 장식한다. 문자는 근본적으로 소통을 위한 것이다. 세종은 신본 질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소통 문자를 만들어 냈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실용성과 효용성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세종학과 훈민정음학을 제대로 세워 그 기상을 우리 인류가 공유해야 한다.



제2회 만불 학술회의 - 불교에서 바라본 생명의 본질과 현대적 가치

“새로운 불교 윤리의 정립은 최고의 포교수단”

전통적 불교문법에서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해야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생명(生命)’ 및 ‘환경(環境)’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인공임신중절, 존엄사, 자살 등의 사건은 현대 사회의 ‘생명경시(生命輕視)’ 풍조를 대변하듯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만불회 및 우리대학 불교연구회는 ‘불교에서 바라본 생명의 본질과 현대적 가치’란 주제로 지난 26일 제 2회 만불학술회의를 주최했다.

학술회의의 기조강연에서 정병조(윤리

문화학과) 교수는 “불교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은 불교의 사회적 책무를 되묻는 반어법(反語法)”이라면서 “불교는 현대 사회의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응용적으로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조 교수는 또 생명을 바라보는 불교의 특징적 성격을 △연기성(緣起生)으로 생명기능을 바라보는 것 △업의 인격적 요소가 삶의 방식 규제 △신체활동을 생명기능 증거로 생각하는 경향 △의식(意

識) 활동과 관련 속에서 과학 △모든 생명 윤회유전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불교윤리에서 본 생명’을 주제로 발제한 허남결(윤리문화학과) 교수는 낙태와 자살, 안락사, 뇌사 등 현실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통적인 불교문법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 불교윤리를 정립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초기경전 등을 통해 생명의 시작은 “어머니의 적절한 때에 성행위라는 적절한 육체적 조건과 함께 중음신의 출현이 있어야

한다”고 본 허남결 교수는 △부모의 성행위 △여성의 가임기 △중음신 하강 등이 생명 탄생의 3요소로 분석했다.

또 허남결 교수는 “가장 현명한 포교의 전략은 ‘종교의 윤리화’라면서 “불교윤리는 깨달음을 전제한 고품격 윤리상품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당장 상용화할 수 있고 실속이 있는 ‘중저가 윤리상품’의 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행사를 주관한 학성스님(만불사 회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대중이 요구하는 질문에 불교적 시각의 해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5달러 낙찰입니다”

“5달러요~ 5달러요~”
경매에 나서기에 많이 부족한 돈.. 하지만 동생에게 자전거를 꼭 사주고 싶어 소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차츰 소년의 마음을 알게 됐고.. 보세요, 하나 둘 손을 내려 양보를 해주네요

자전거보다 더 소중한 사랑을 얻은 소년, 더불어 사는 법을 아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 더 넓은 세상에 따뜻함을 이어주겠죠?

마음을 열면 따뜻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시인은 독서한다. 고로, 자유롭다.

『장자(莊子)』와 『한비자(韓非子)』에서 스케일과 본질을 배우라

박제천 동국문학인회 회장의 필독서 추천

우리대학 국문과(國文科) 출신 박제천(朴堤千) 동문(시인·문학아카데미 회장)은 현재 동국문학인회 회장이다.

대학 재학시절부터 동국문화회라는 문학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재학시절 등단해 대학생이자 시인(詩人)이었다.

박 동문에게 시(詩)를 쓰게 된 별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 때 스크랩하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시만 따로 스크랩하던 중 남의 글만 모으는 데 대해 은연중에 싫증이 생겨 그때부터 시를 쓰게 됐다고 한다.

“어찌 보면 나에게 있어 시를 쓴다는 건 자연발생적(自然發生的)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처음부터 무의식적으로 시로 이끌려 들어가 써 보곤 했었다”고 말하는 박 동문을 보며 시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시를 쓰는 매순간은 그에게 있어 행복(幸福)이고 즐거움이라 했다. 또한 그는 시를 머리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는 머리로 쓰는 것

이 아니라 자기 속안에 수많은 무의미 중 의미(意味)를 찾아 단어로 승화(昇華)하는 것이 시라며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시를 쓰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생각의 잣대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 힘이 바로 독서라고 생각한다”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요즘 책을 잘 읽지 않은 대학생이 존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혼자 다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며 독서(讀書)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독서는 미지의 세계의 지평이와 같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앞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독서지”라고 박제천 동문은 덧붙였다.

또한 박 동문은 대학생들이 주로 판타지 소설을 읽는 독서습관에 대해 “독서에는 장벽이 없다.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도 좋지만 독서의 주가 판타지 소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책 장자와 한비자를 추천했다.

“장자는 삶과 정신(精神)의 스케일을 키우고 삶의 본질(本質)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機會)를 준다. 모든 일에 있어 논리적(論理的)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석(解釋)이 달라지는 일이 삶의 다반사다. 그 기준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또, 한비자는 사람을 잘 다스리는 법과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지혜를 주니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제정신 차리고 싶으면 문학해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폭넓은 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판단의 잣대를 갖추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또 “자존심을 가지라”며 “자기 확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시작할 것”과 “자기 이름 석자를 귀중히 여겨 함부로 굴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시인의 말 속에 후배들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났다.

이지연 기자
ljy88918@dongguk.edu

김갑기 교수의 독서산책

과거·현재를 이어주는 숨쉬는 역사, 조선왕릉

매스미디어를 통해 두루 아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북한 소재 왕릉(王陵) 2기를 제외한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되고, 재위한 모든 왕과 왕비의 능이 온전히 남아 있는 사례는 세계사에서 조선 왕릉이 유일하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이 조선 왕릉인 것이다.

저자 이우상은 우리대학 국문학과 출신으로 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로 등단한 소설가다. 그는 장편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 외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중진 작가의 반열에 있는가 하면, 2006년에는 캄보디아의 불교 유적지를 순례하여 『앙코르와트의 모든 것』으로 지가를 올렸다.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 1,2권

지은이: 이우상 사진: 최진연
펴낸곳: 다할미디어 1·2권 각 12,000원

자”며 특유의 유머와, 때론 패담 같은 너스레도 마다하지 않다가, 문득 “조선 왕조 518년, 27대 역대 왕과 왕비, 추존 왕과 왕비의 능(陵) 42기와, 왕의 사친, 왕세자와 그 비의 원(園) 13기, 대군·공주(왕의 적녀)·옹주(왕의 서녀)·후궁·귀인 등의 묘(墓) 64기 등 신분에 따라 분류한 능·원·묘를 합쳐 조선 왕조, 왕조의 무덤은 모두 119기가 있다”는 등 미지의 정보로 독자의 무지를 희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능의 형식은 분묘 조성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단릉·쌍릉·삼연릉·동원이강릉·동원상하봉릉 등이 있다며, 각 능호와 왕을 밝혔다. 이어 합장릉은 왕과 왕비를 하나의 분묘에 합장한 형태로 조선 초 『국조오례의』에서 정한 조선 왕실의 기본 능제라 하고, 삼합장릉은 왕·왕비·계비를 함께 합장한 형태로 유릉(순종)이 유일하다”했다. 결국 “능은 단릉이든 합장이든 권력의 성쇠,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씨를 몹시 사랑해 강비의 능을 도성 안에 만들었지만, 태조가 죽자 태종은 양주 사한리(현 성북구 정릉동)로 이장하고, 후궁으로 강등해 묘로 격하시켰다”며 죽으면 끝인 계세속의 이치지만, 권력과 연루되면 죽어도 끝이 아닌 역사의 뒤안을 귀뿔하기도 한다.

한편, “영조는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오래(52년) 왕위에 있었으며, 그는 생전에 현 서오릉에 자신의 수묘(가묘)를 만들었지만, 정조는 영조가 죽자 그 반대쪽 동구릉, 그러니 100년 전 효종의 능이었던 파묘 자리에서 영조를 묻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할아버지가 너무나 미웠기 때문이다”며,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하는 자, 살아있는 자만큼 사람됨에 이르러나니 자, 그들의 이름이 왕이다”라며 “권좌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언제나 동시대인과 함께 산다” 했지만, 정작 우리는 ‘영 죽은 자들의 무덤으로만 기억됐다.’

그렇다. 다민족·다문화시대에 남들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하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의 차원을 넘어,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자긍심은 물론, 타민족에게도 일깨워 줄 자성인의 자질도 갖춰야 했다. 일독을 권한다.

(문과대 국문과 교수)

이주의 서평

영화를 바라볼 새로운 날개를 달다

김학순
(서강대 교수, 영화감독)

문학이나 미술, 무용, 음악 등이 각기 나름대로 언어를 구사하여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해내듯, 영화 또한 나름대로의 표현 언어가 있다. 그 고유의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영화는 더 이상 영화예술로서의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더구나 영화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표현은 더욱 복잡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

모든 예술 영역의 거의 마지막에 생성된 영화예술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의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최근 <영화영상 스토리텔링 100> (Cinematic Storytelling, 제니퍼 밴 시즐 저, 정재형 역)이라는 책을 소개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그간 10여년이 넘게 영화제작교육을 담당하면서 피부로 느낀 것이 바로 영화언어 표현의 중

요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도 여러 사람의 표현 방식이 그렇게 다를까? 왜 어떤 사람이 표현한 방식은 다른 사람이 표현한 방식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결국 나는 그것이 이야기를 전달

노하우를 직접 배우거나, 실제로 영화를 만들면서 그 의문점들을 직접 풀어보기 전에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역량 있는 감독들의 작품을 통해 일반적인 상황을 특별한 영상으로 그려내는 그들의 재능과 재치를 보며 바로 한국 영화에서 필요

시선, 카메라 렌즈,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의 동작, 편집 등에 관한 페이지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앞서 언급한 감독들의 비밀스런 노하우를 드디어 획득한 느낌마저 든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법들을 설명하는 책에선 영상의 예들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영상과 시나리오의 직접 제시통해 영화문법을 쉽게 전달 연출자보다 시나리오 작가를 위해 집필된 것도 큰 특징 영화언어 표현보다 이야기 서술구조에 더 많은 시간 할애

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그리 쉽게 풀려질 것 같지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감독의 평생의 과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잘 풀어내는 유능한 감독들 밑에서 그

한 것이 저러한 면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며 나는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수없이 수업을 통해 프레임 공간상의 X, Y, Z 축에 대한 것을 설명해왔지만, 이같이 간단명료하게 그 원칙과 적용을 실제 영화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준 책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선 영상과 함께 그 영상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들을 직접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장면장면을 설명하고 있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일례로 제인 캠피온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절묘하게 영상으로 표현한 <피아노>에서의 클로즈업에 대한 설명은 영상이 관객과의 교류에 있어서 얼마나 감정적, 심리적 촉

면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것은 어디서 돈을 지불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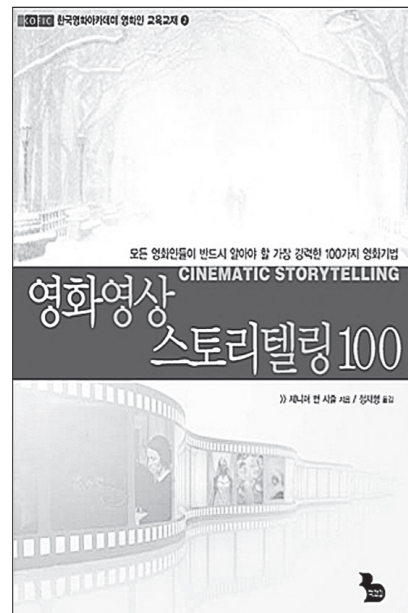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이 연출자보다는 시나리오 작가를 위해서 집필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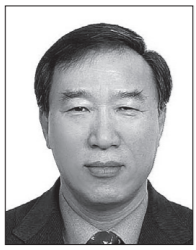
과거엔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언어의 표현 자체보다는 이야기의 서술 구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이야기 구조를 어떤 영화적 언어를 통해 표현해낼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더 뛰어난 영상 시나리오를 집필하는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감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화적으로 풀어내는데 있어 일종의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도서 중의 한 편임을 간과할 수 없다.



지은이 제니퍼 밴 시즐
펴낸곳 책과 길
320쪽 / 12,000원



이영환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달하나 천강에 시장과 정보

최근 여러 국제경제기구들이 조심스럽게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경기지표가 개선되고는 있는 반면 여전히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개인이나 기관이 미래 세계경제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래 세계경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들이 다양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자기실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권위 있는 기관이나 인물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예측하고 사람들이 이를 믿으면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시장경제에서 미래 예측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경제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탄생한 체제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은 자신의 판단과 계산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므로 시장경제에는 이들의 계획을 사전에 조정해주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조정 실패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는 스스로 치유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때로는 이런 실패가 주기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초래하거나 불안정한 경기과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필자는 현재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그리고 세계화 및 정보화의 부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보화는 양날의 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투기적 금융자본은 정보를 이용해 세계적 규모에서 각종 시장을 넘나들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엔케리 트레이드나 달러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투기적 행위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투기적 행위의 중심에는 헤지펀드와 실체가 불분명한 국제금융자본이 존재한다.

자본의 본질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킬 수는 없다. 문제는 이른바 국제금융시장의 메이저라 불리는 세력들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데 있다. 변동성이 커지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므로 소비나 투자활동이 위축되기 쉽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실적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거대한 추세를 역행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드러난 금융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정보적 우위를 이용해 변동성을 증폭시킴으로써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현명한 정부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동문칼럼
황영남
국교 84졸 세종고 교장

교육, 학교, 교사에 대한 단상

21세기 교육의 최고화두는 '글로벌시대'를 감당할 차세대 '양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날은 국경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고, 컴퓨터의 발달은 시간의 제약마저도 없애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양성에 소홀할 수가 없다. 글로벌 시대의 인재는 생각부터 국제적이어야 한다.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 공부와 국제적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말할 때 학력을 제외시킬 수 없다. 학력향상이 국제경쟁력 향상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내로라하는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경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재원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그 나라의 인재가 세계의 인재가 될 수 있어야만 국가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학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수밖에 없다. 우

리나라의 지난 20년은 알다시피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달라졌다.

그 전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90%가량은 써먹지 못하는 지식과 기술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학교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써먹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교육이 아니라 이것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교사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교사가 사회와 학교에서 가장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된 측면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 혹은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노동자의 위치가 더 강조되는 것 같다.

오래지 않아 교직에도 비정년 트랙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평가에 따라 인사와 보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고가 아니면 튜터의

역할을 맡도록 강제당할 수도 있다.

앞으로 교직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확대될 것이고, 교원평가제가 정착될 것이며,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 기기의 발달이 시공의 제한을 넘는 교육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과거의 학생들이 아니다. 필요한 지식은 사이버에 다 있고, 궁금한 문제는 사이버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기대가 옛날과 다르고 또 교사의 필요성도 적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젊은 영재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몰리는 현상은 우려된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뛰어난 인재들이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좀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직은 세 가치를 갖추고 있으면 된다.

첫째가 학생들에 대한 사랑 즉 교육애이고, 둘째는 교과 및 업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며,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소양과 자질은 굳이 뛰어난 인재가 아니더라도 함양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집·에·세·이



개(開)강, 웃음꽃이 만개(開)하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학생칼럼
양새롬
문예창작학과 2학년

우리들의 진정한 소통

지난 1학기, 동아에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언젠가 등굣길에 피켓을 들고 목청껏 소리치던 총학생회장의 모습을 보았고, 햇살이 강렬했던 팔정도에서는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단식농성 현장을 보았다.

사회과학관 로비에서 탁구공에 서명을 했고, 강의시작 직전에 들어왔던 부총학생회장의 연설을 듣고 광고지도 받았다. 그다지 오래전 일도 아니건만 해당학과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일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게는 뭐 하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없다. 여름방학동안 동아 곳곳의 게시판에는 총학생회의 소식지인 'Communication-D'가 붙어있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소식지를 보고 있는 학우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오히려 공모전이나 각종 참여프로그램 포스터 앞에 멈춰선 학우들만 간간히 볼 수 있었

다. 소통을 통해 D(Dongguk, Democracy, Dialog, Development)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소식지 이름이 무색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두고 학교와 총학의 충돌이 한 학기를 넘어서 계속되고 있지만 학우들은 무관심해 보인다. 학우들의 소통의 장인 싸이월드 클럽 디연, 하루에도 수천의 방문수를 기록하고 새 글이 수백 개씩 업데이트가 되는 곳이지만, 41대 총학생회의 입장을 밝히고 학우들과 소통하는 Place 'Ourism'의 조회 수는 평균 200을 넘지 않는다. 이는 게시판 중 하나인 니모의 글들이 매번 조회 수 1000을 웃도는 것과 매우 대비된다. 따라서 디연의 접근성이나 활성화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많은 학우들이 동아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학기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야 아무리 학내사안에 관심이 없더라도 동아를 오고가

며 알 수 있지만 방학 중에 있었던 일들은 학우들의 무관심 속에서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우들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학우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총학과 학교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5월 28일의 총장 부속실 점거농성으로 인해 총 42명의 학우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동아의 여론은 잠잠하기만 하다.

무조건적으로 총학의 편을 들란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반대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학내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본인의 의견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학우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다. 총학과 일반 학우들과 학교당국의 진정한 소통,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독 / 자 / 투 / 고 동대신문사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자유로운 주제로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2260-3491~2, 010-6560-7927 e-mail : yshero21@dongguk.edu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사고의 향연 思考叢지, 제4회 동국 글쓰기 아카데미

2009년 2학기 글쓰기 아카데미

- 강좌
 - 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 월 16:00~18:00 / 최윤곤 한국어교육센터 전임강사
 - 글의 구성과 예술적 글쓰기 / 화 16:00~18:00 / 백가흠 소설가, 문예창작과 강사
 - SF적 상상력과 개성적 글쓰기 / 수 16:00~18:00 / 복도훈 문학평론가, 국문과 강사
 -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글쓰기 / 목 16:00~18:00 / 이철호 국문과 강사
- 강의기간
2009년 9월 14일(월) ~ 10월 8일(목) 4주 과정 / 강좌 당 주1회 2시간(총 8시간)
- 기타
강의 계획서 및 강의실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됩니다.
글쓰기 아카데미 참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공통사항 : 주머니 파일
***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수강자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핸드북**

- ▶ 신청방법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
- ▶ 등록기간 2009년 9월 1일(화) ~ 2009년 9월 11일(금)
- ▶ 신청대상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 기타 각 강좌 당 20명 선착순 마감 / 수강 신청 시 수강료 10,000원 납부(3/4 출석 시 환불)
- ▶ 글의 구성과 예술적 글쓰기>는 3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 * 수강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학과,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강좌명, 담당강사명]

성공 취업을 위한

2009년 3차 「면접스킬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9년 3차 「면접스킬마스터 프로그램」을 시행함을 안내하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목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준비를 통해 다양한 면접유형과 스킬을 교육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면접전략 수립
-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가. 모집대상 : 3, 4학년 및 기졸업자
나. 모집기간 : 2009. 9. 14(월) ~ 9. 18(금) ※ 선발인원(40명)의 2배
- 교육내용
가. 교육형태 :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다. 교육장소 : 명진관 A203강의실과 본관3층 취업지원센터내 취업상담실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라. 프로그램 및 강사

구분	차수	일시	인원	비고
2009-2학기	3차	2009. 9. 26(토) 08:40 ~ 18:20	40명	
시간	프로그램	내 용	진행 및 감사	
08:40~09:00	등록	홍익채크 및 교재 배부	취업지원센터	
09:00~10:00	면접 특강	면접의 이해 및 면접대비 인터넷스킬		
10:00~12:00	유형별 면접실습(1)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전문강사	
12:00~13:00	점심			
13:00~15:00	유형별 면접실습(2)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 집단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면접		
15:00~18:00	인사담당 실전 모의면접	프로그래밍 및 감사에 대한 실문조사	인사 담당	
18:00~18:20	실문조사		취업지원센터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교양수학 튜터링 안내

수학과에서는 교양수학의 효율적인 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튜터링을 운영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기간 : 2009년 9월 7일~2009년 12월 17일
- 일시 : 월~금 오후 2시~4시, 시험기간 오후 1시~5시
- 장소 : 과학관 308-116호 교양수학/개인교습실
- 문의 : 수학과사무실(02) 2260-8712



논단

하재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대학, 한쪽 날개로 날아오르다?

요즘 각 대학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후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구호는 '세계초일류대학', '세계선도대학', '세계 수준의 지역거점 대학' 등 거창하기 이를 데 없으며, 하나같이 세계 50위권 내지 100위권 대학으로 비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략과 계획도 잘 짜여 있는데, 특히 교수와 학생에 대한 여러 지원은 정말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되기에 나무랄 바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계획대로만 된다면,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와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가 실시한 (2008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100위권 안에 겨우 2개만 들어 있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한 30년쯤 후에는 최소한 20~30개 정도는 100위권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 모든 대학의 청사진 속에 공통으로 빠진 것으로 강사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다. 강사들이 논문을 썼다고 해서 연구비를 주거나 줄 계획인 대학은 한국에도 없다. 그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대학도 없다. 그들의 생존권을 걱정해서 강의료를 최소한의 생활이 되게끔 올려주려고 고민하는 대학은 더더군다나 없다. 강사는 시체말로 '보따리장수'라 불린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 대학 저 대학을 전전하면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들은 교원도 아니어서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교육계의 장물뱅이다. 그런데 이 '보따리장수'란 용어 때문에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강사

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대학강사는 대학교육의 40% 내외를 맡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 대학이 되기 위해 이리저리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학들이 정작 교육의 40%를 맡겨놓은 이 강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의 40%는 대학발전계획에서 제외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또 세계적 대학을 꿈꾸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2008년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권 안에 37개의 대학을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자. 2001년 현재시점에서 워싱턴 주에선 강사의 임금이 전임교원의 55%에 도달했으며, 전임교원 강의량의 50%만 되어도 은퇴 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조건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강의량의 40% 이상만 되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보며, 20% 이상이 되면 유급으로 학생을 면담할 수 있다. ('비정규교수, 벼랑 끝 32년' 중) 이러한 대우는 강사들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을 생산해내도록 하였고, 다시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하였으며, 마침내는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했던 것이다. 2009년 현재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강사는 어떤가. 시간당 3~5만 원정도의 강의료에 평균 6시간을 강의한다. 그러면 한 학기, 즉 6개월에 300~500만 원을 받는다. 그 외는 없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비정규직에 취직한 소위 88만원 세대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꼴이다. 거기다가 올 7월부터는 비정규직 보호법

이 실행되면서 박사학위 미소지자 중 2년(4학기)을 연속으로 강의한 강사들을 전국적으로 해고하고 있다. 주당 15시간미만을 노동한 자는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비정규직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서울고등법원이 시간강사의 1시간 노동은 강의 준비 등을 고려해 3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 근거해 5시간 이상을 강의한 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법적인 논리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하는 태도다. 가장 최근의 경우로 부산의 모 국립대학은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70명의 강사들을 해고했다. 강의준비를 마친 순간 졸지에 실직자가 된 것이다. 해고된 강사들 중 그 대학에만 강의를 나가는 선생님이 있지 않겠는가?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태인가? 대학들은 한술 더 떠서 앞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만 강의를 주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 최소 10여 년간은 글만 읽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과연 그럴 감당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다. 그리고 그 교육은 교수뿐 아니라 강사로부터도 나온다.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데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대학 당국도 고민해야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그로 인한 대학의 비상은 교수와 강사라는 양 날개로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이 없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사설

스타급 교수 초빙

교수채용(採用)에 있어 순혈주의(純血主義)가 지배적이었던 연세대가 올해 2학기 신입(新任) 교원(총 34명) 채용에 있어 모교 출신(12명, 35%)보다 타 대학 출신(22명, 총 65%)을 더 많이 채용했다. 모교와 동문에 대한 자존심이 섰던 연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한 이유는 일명 '동종교배(同種交配)'인 동문들로 구성된 학과 교수진 구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학과 교수진이 같은 학과 선후배로 구성된다면 타 대학의 이론이나 학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학문을 고루(固陋)하고 편협(偏狹)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연세대가 외부 인사들을 채용한 더 큰 이유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해 국제적인 대학으로 도약(跳躍)하기 위함이다. 채용된 교원들 중 경제학부에서 1년간 전임으로 강의를 맡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릭 매스킨 교수를 비롯한 석학급 5명을 포함해 외국인 교수가 15명이나 됐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국내에선 연세대의 순혈주의 타파(打破)가 뉴스거리가 됐지만 이미 외국에선 상상한 이야기다. 외국에서 교수 채용의 최우선 기준은 교수의 능력이다. 외국대학들은 SCI급 학회지에 논문 등재, 정부 지원 사업 수주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교수들을 채용한다. 또한 학문과 대학발전에 이바지할 유명교수들, 스타급 교수들을 초빙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그 능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대학정책은 학문의 창의적인 발전과 대학의 발전이라는 선순환구조(善循環構造)로 이어진다. 우리대학 또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2학기 신규교원 총 14명의 교원 중 12명을 타 대학 출신의 박사들로 채용했다. 그 가운데에 14명 중 외국인 교원은 10명이다.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우리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중 모교출신 교수 비율이 전체교수의 32.1%로 순혈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된다. 동국미디어센터가 방학중 취재한 해외대학의 경우 스타급 교수 초빙을 위해 총장이 직접 나서서 세계를 뛰어 다니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연구능력이 있는 교수의 확보야말로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급 교수 초빙을 하기 위해선 거기에 걸맞는 대우와 지원도 필요하다.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비 지원은 물론 연구 공간, 자녀들에 대한 교육혜택 등이 뒤따라야 한다.



메아리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서민 따라잡기

▲오뎅(おでん), 생선 살을 으깨어 두부 및 밀가루에 반죽한 생선묵을 튀겨 고창이를 켜 음식이다. 생선을 즐겨먹는 일본인들이 생선을 갈아 그것을 압축하여 묵처럼 만들어 먹었는데서 유래된 '오뎅'은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희뿌연 김을 호호 불어 내며 오뎅의 정겨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겸비한 오뎅은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서민 음식'으로 줄곧 사랑받고 있다. ▲ 지난 해 7월 MB는 '서민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돌보겠다'는 취지에서 재래시장을 여러차례 방문했다. 그는 '민생 시찰'이라고 일컫는 골목 시장 순례에 앞서 열린 비상 경제대책회의에서도 "하

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두고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MB는 재래 시장 방문 때 여러 음식 중에서도 길거리 노점상에서 팔고 있는 오뎅을 사먹었다. 그 당시 MB 정권은 있는 자만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MB가 서민음식으로 대표되는 오뎅을 사먹는 행위는 오히려 서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받았다. ▲ 최근 MB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1000만객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에 등장하는 쓰나미와 같이 사람을 휩쓰는 '4대강 쓰나미'로 비유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고용, 주거 예산 등 서민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

제위기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예측에서 비롯된 말이다. MB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거꾸로 행보는 계속 되고 있다. 쇠고기 수입 파동 당시 반대 촛불시위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구속 영장', '경찰동원력'을 사용해 짓밟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MB 정부는 여전히 親 서민 정책, '서민경제'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서민을 위해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는 MB 정부가 만든 정책을 살펴보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자세는 '언행일치(言行一致)'이다.

만평



나 홀로 지키는 예방수칙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웅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스님들은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
결계 신청 및 포살 참여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에 의거, 대중결계와 포살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교에 재학중인 스님들은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 결계 접수
1. 기간 : 2009. 9. 7(월) ~ 2009. 9. 18(금) 17:00까지
2. 장소 : 정각원 사무실
3. 대상 : 2009. 2학기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조계종 스님
* 대상자 예시 : 2009.2학기 위촉 강사 스님, 대학(원)재학 스님
* 현재 학적 상태가 휴학 또는 수료자인 경우, 관할 또는 거주지 교구본사에 접수바람.
■ 포살 범위
1. 일시 : 2009. 9. 29(화) 오후 5시 ~
2. 장소 : 정각원 법당
■ 유의 사항
1.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구(니)계 수지 불가, 각급 승가교시 응시 불가, 법계 품수 불가.
2. 기타 문의 사항은 정각원 사무실(☎2260-3016)로 문의 바랍니다.
정각원장 법타 합장

도서관 이용시간 안내 [2009~2학기]
건물 층 장소 요일 구분 평일 토요일 / 일요일
중앙도서관 3층 불교학자료실 09:00-21:00 09:00-17:00
2층 대출반납실
멀티미디어실
1층 자연과학실
지하 1층 사회과학실
지하 2층 인문과학실
4층 증축 열람실
지하 3층 별관 열람실
법학도서관 3층 단행본실 09:00-21:00 09:00-17:00 (일요일 휴관)
3층 멀티미디어실
2층 참고자료실
1층 열람실 24시간 개방
* 기간 : 2009. 9. 1(화) ~ 12. 21(월)
* 학기 중 일요일에도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 증축 열람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법학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은 일요일 휴관입니다.
* 시험기간 중 이용시간 안내는 별도로 공지 예정
중앙도서관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9/7) 갈비정단(2200)/치킨가스(2500)/쇠고기볶음밥(2000)/부대찌개(2500)
화(9/8) 오징어떡볶이(2000)/돈가스(2500)/돈삼겹두루치기(2200)/영양갈비탕(3000)
수(9/9) 탕수육(2200)/그루터기정식(3000)/열무비빔밥(2200)/육개장(2500)
목(9/10) 제육콩나물볶음(2200)/치즈돈가스(3000)/참치김치볶음밥(2200)/손만두(2500)
금(9/11) 햄구이(2000)/포세이돈파스타(3000)/달걀비빔밥(2200)/참치전골(2500)
아리수 월(9/7) 햄구이(2000)/새우가스(3000)/치킨골소스덮밥(2200)/김치치즈소밥(2500)
화(9/8) 돈육계란장조림(2200)/치킨가스(2500)/매운오삼볶음밥(2000)/설렁탕(2500)
수(9/9) 미트볼계란조리(2000)/치즈돈가스(3000)/쇠고기면볶음덮밥(2200)/사브칼국수(2500)
목(9/10) 오징어콩나물볶음(2200)/돈가스(2500)/중국식볶음밥(2200)/갈비탕(3000)
금(9/11) 불고기숙주볶음(2200)/상록원정식(3000)/참치김치덮밥(2200)/순대국밥(2500)
상록원 월(9/7) 참치덮밥(2200)/오삼불고기덮밥(2200)
화(9/8) 낙지콩나물비빔밥(2200)/버섯육개장(2000)
수(9/9) 제육비빔밥(2200)/새싹참치캔비빔밥(2200)
목(9/10) 불고기덮밥(2200)/팜빙덮밥(2200)
금(9/11) 간지장밥(2000)/날치알회덮밥(2200)

80명의 손길이 만든 행복 바이러스

108리더스 인천 장봉 해림원 봉사활동 현장 르포

‘테레사 효과’란 말을 들어보았는가. 일평 생 봉사과 사랑을 배운 마더 테레사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신이 직접 봉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마더 테레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바라보기만 해도 신체 내에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물질이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지난 27일 약 80명의 108 리더스의 인천 장봉 해림원 봉사활동에 동행한 기자는 ‘테레사 효과’에 의한 행복바이러스가 체내에서 거듭 생성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테레사 효과를 느껴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은 처음인 108 리더스가 봉사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 향하는 곳은 ‘인천 장봉 해림원’. 이곳은 ‘장봉도’라는 섬에 위치한 정신지체인 생활시설로 장애우들이 다시 사회의 평범한 지역 성원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재활 및 요양을 하는 복지시설이다.

오전 10시 30분 인천 삼목 선착장. 섬에 위치한 장봉 해림원에 가기 위해선 인천 삼목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한다. 108 리더스 학생들은 출발 전 작은 돈을 모아 장봉 해림원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한 학생에게 들고 있는 물품이 무엇인가고 묻자 “육지와 떨어져 있는 장봉 해림원의 사람들은 지리적인 악조건 때문에 외식하기가 어렵대요. 해림원 사람들을 위한 작은 레스토랑을 체험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약 300인분의 고기를 준비했어요”라고 대답했다. 배에 올라탔을 때 거센 비는 멈췄지만 날씨는 여전히 흐린 상태. 이번 봉사활동에 대해 108 리더스 단장 윤형석(철학과3) 군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그들과의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을까요”라며 기대섞인 생각을 비쳤다.

적막했던 섬, 활기를 불어넣다

“어디서 왔어요?” 여기저기서 학생들을 마중 나온 장애우들이 108 리더스 학생들의 손을 내밀며 어눌한 말투로 반가움을 표현한다.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은 아직은 어색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김진희(경영학과3) 양은 “처음엔 장애인이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부감이 들었지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와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부터 학생들과 장봉 해림원 장애

우들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 학생과 장애우가 함께 어우러지는 식사시간. 식탁에 자리를 잡고 이미 식사를 하고 있던 장애우를 보고 어디에 앉아야 하나 주눅주눅 식판을 들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눈에 띈다.

“여기 앉아”, “많이 먹어” 말을 건네주는 장애우를 맞은 편에서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났다. 식사시간에는 “헛 밧살이 세요? 전 25살이요” 통성명을 하며 너스레를 칠하는 남학생들도 보였다. 학생들의 방문에 시끌벅적해지자 식당 아주머니는 “작은 식당이 젊은 학생들로 가득 차니 생기가 넘쳐나네”라며 즐거워했다. 108 리더스 학생들의 방문이 적막했던 장봉 해림원에 활기를 불어 넣는 모습이 정겨웠다.

손길이 필요한 곳 어디든

오후에는 40명씩 총 두 조로 나뉘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한 팀은 외부 환경 봉사를, 또 다른 팀은 1:1 장애우와의 만남을 통한 친목 도모를 담당했다. 전등 갈기, 빨래 날기, 그리고 잡초 뽑기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일로 느껴지지만 1급 정신지체인이 해결하기엔 어려운 일이 곳곳에 존재했다. 외부 환경 봉사의 업무는 잡초 뽑기 및 배수로 공사, 거름 주기 등 일손이 부족하기에 평소엔 이뤄지지 못했던 환경 개선 및 농사일에 주력했다. 한 손엔 낫, 머리엔 수건을 쓰고 뜨거운 햇빛 아래 해림원 운동장의 길게 자란 잡초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사다리에 올라가 각 집마다 전등 갈기를 하고 현우(전기공학3) 군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전등 갈기만으로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기쁘네요”라고 말했다.

몇시간만에 10년지기 친구처럼

같은 시간 1:1 봉사 팀은 바닷가를 거닐며 장기자랑 및 대화의 시간을 나눴다. 그들은 해안 모래밭을 무대삼아 희색빛의 갯벌과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했다. 학생, 장애우가 2인 1조로 나와 흥겹게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는 모습에선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경계가 없었다.

1박 2일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테레사 효과가 나타나듯 밝은 미소가 서려있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환희를 느낄 수 있다는 건디의 말처럼 108 리더스 학생들의 마음에 장봉 해림원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을 담아 온 듯 보였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장애우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죠... 감정표현 방식이 어눌할 뿐...”

장봉 해림원은?

장봉 해림원 재활원과 장봉해림 요양원으로 구성되었다. ‘장봉도’라는 도서 지역에 위치한 정신지체인 생활시설로서 100여명의 정신지체인들과 50여명의 직원들의 생활 공동체이다. 장봉 해림원은 매년 한 세대 씩 인천 시내에 그룹홈을 설치하여 시설 장애인들의 주거와 활동 기반을 이전해주고 있다.



① 손하트를 그리는 108리더스 학생과 장봉 해림원 장애우 ② 손잡고 해안가를 걷는 모습 ③ 장애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학생 ④ 장애우와 함께하는 환경봉사 ⑤ 환경봉사 후 장애우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

동국대학교 토요일 법회

2. 2009년 하반기 정각원 불교대강좌 일정

월	일	강좌 주제	강-법사	소속
2009	5 (일17)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은혜사 회주
	12 (일24)	2주년 기념법회	성관스님	동국대학교 상임 이사, 수원사 주지
	19 (일1)	생명과학의 선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26 (일8)	마음공부와 명상	정목스님	정각원, 불교방송-유나방송 진행
9	3 (일15)	★ 추석으로 법회 없음		
	10 (일22)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은혜사 회주
	17 (일29)	한국의 100	월호스님	생계사 국사원·평불선원, 불교방송 진행
	24 (일6)	성지순례	김창균	예술대학 교수
10	31 (일13)	불교와 음악	최종민	한양대학교 교수
	7 (일17)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은혜사 회주
	14 (일24)	선 수행의 바른길	지환스님	주계중 기문선원장(동화사 선원장)
	21 (일31)	불교와 자비수행	법타스님	동사심 행복마을
11	28 (일7)	불교와 현대정치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5 (일14)	생활법회	법타스님	불교대학 교수
	12 (일21)	과학으로 본 대중기신론	소광성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19 (일28)	중국의 선	송욱스님	동원정사 주지, 교서대학 학장
12	26 (일4)	인도 초기의 수행	황순일	불교대학 교수
	2 (일11)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은혜사 회주
	9 (일18)	불교와 자연의학	김원준	(주)인신기 회장
	16 (일25)	불교와 인터리어	세준스님	한국홍수사상연구회장, 철학박사(선학과)
1	23 (일1)	경역의 화두, 불교	정인악	정각원 신도회 회장, (주)칠안사 대표
	30 (일8)	불교와 건강(물)	김현원	연세대 의대 교수
	6 (일15)	선과 심리학	이광준	일본 용국대학 객원교수
	13 (일22)	★ 설연휴로 법회 없음		
2	20 (일29)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은혜사 회주
	27 (일6)	불교와 출판문화	김연호	한림사(출판) 대표

※ 법회(신행)문의 : 정각원 02)2260-3016~8
정각원 신도회 02)2260-3019

동국대학교 정각원
TEL. 02)2260-3016~8
http://jeonggak.dongguk.edu

대학생 법회

“청년불자에게 법회에 오셔서 마음의 심포를 찍고 가세요~”

기뻐요?
안가 봤음
말을 하지 마라~!

동국대 학생법회!!
참 쉽죠~!

웃음이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여유가 필요할 때,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정각원법당
학기중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 7시까지

법회 및 강연일정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5:30 ~ 7:00
1부 기도법회 오후 5:30 ~ 6:00 (저녁예불, 기본예불)
2부 초청법문 오후 6:00 ~ 7:00

장소 : 정각원 법당
대상 : 관심있는 대학생(원생)

월	일	강좌 주제	강-법사	비고
9월	9(수)	개원법회	법타스님	정각원
	16(수)	21C불자의 역할	원진스님	여의도교도원장
	23(수)	대학생활속의 불교	정명스님	육원원 주지
	30(수)	특강(대학과 불교)	박정국교수	생명자원학과대학장
10월	7(수)	한국불교의 글로벌마인드	성관스님	수원사 주지
	14(수)	원효스님은 누구인가?	김상원교수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28(수)	대학생들의 재테크 전략	이영일LP	푸른연설 LP
	4(수)	붓다의 리더십	마카스님	천안 만일사 주지
11월	11(수)	알기쉬운 불교리 1	주경스님	부석사 주지
	18(수)	알기쉬운 불교리 2	주경스님	부석사 주지
	25(수)	대학생을 위한 배낭여행가이드	전유진	YU연설원
	12월 2(수)	종교법회	원장스님	정각원장

1. 2부 법회 참석자에게 석좌권이 있습니다.
2. 법회에 모두 참석하신 분에게는 ‘불교청년지도자역량강화사업’ 시가량이 있습니다.
3. 무관한 법회에서 신청활동용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신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당문의 : 정각원 법회 : 매주 토요일 오전 10:00~12:00, 정각원법당
연락처 : 법회 2부세 토요일 오전 10:30, 불교방송 3부세 : 주동학생

dongguk UNIVERSITY 주주: 동국대학교 정각원(02,2260-3016~8), 불교도연합회